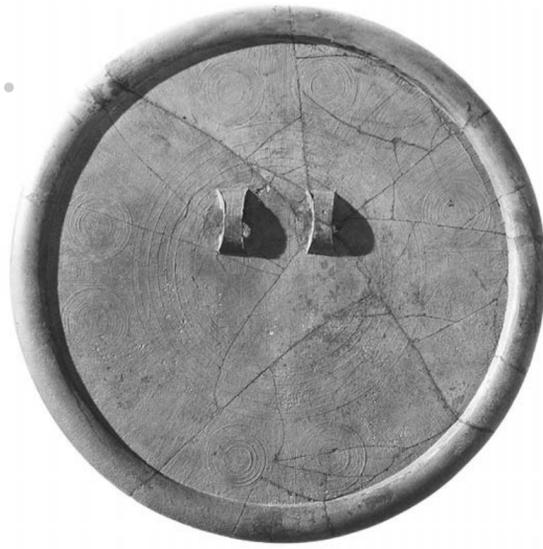


● 국립나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

고대 거울은 오늘날과 달리 모두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었다. 또한 시대마다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거울이 가진 의미 또한 달랐다. 거울은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사람과 사람 간 단순한 물자 이동을 넘어 사회·문화적 이해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됐다. 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거울을 통해 당시 삶과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나주박물관 기획특별전 '빛, 고대 거울의 속삭임'이 내년 2월9일까지 열린다.

▶ 왼쪽부터 국보 공주 무령왕릉 거울, 고흥 동호덕 거울, 창원 다호리 거울, 국보 화순 대곡리 거울



거울, 옛사람들의 삶을 투영하다

삼한부터 삼국시대까지

출토 전시품 270여 점 선봬

다양한 무늬 통해 당시 내세관

소유자 배경·의미 등 조명

이번 전시에서는 삼한부터 삼국시대까지 거울과 함께 출토된 전시품 총 27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시기별로 거울을 가졌던 사람들을 조명하고, 동북아시아의 거울 교류 양상과 거울 속 무늬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소개한다.

화순 대곡리 정문경, 무령왕릉 의자손수대경 등 국보 지정 거울 2점을 비롯해 평안남도 평양지역부터 제주도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확인된 거울을 선보인다.

특히 가장 최근 발굴된 함평 언다리 제동고분, 고흥 신호리 동호덕고분, 신안 대천리, 경주 사리에서 출토된 거울을 발굴조사 기관들의 협력을 받아 한자리에 모아 최초 공개한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선 청동거울의 제작 과정과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여러 개 꼭지가 담긴 거울 '다뉴경'(多紐鏡)을 살펴보고, 생활 곳곳에서 이뤄진 거울 관련 의례를 소개한다.

2부는 고대 거울을 소유했던 사람들을 탐구하는 공간이다. 거울을 가졌던 사람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거울을 갖게 된 배경과 소유자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

3부에서는 거울을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와 거울에 담긴 고대 사람들의 내세관을 소개한다. 고대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일본에서 만든 거울들이 유행했다. 이러한 거울의 분포 양상을 통해 유통 경로와 교류 중심지를 들여다본다. 마지막 코너에서는 거울에 있는 다양한 무늬와 글을 조명해 당시 사람들의 내세관과 거울에 담긴 다양한 의미를 느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관람객들의 흥미를 높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일록달록, 소원을 담은 거울',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는 국립나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오랜 기간 우리 곁에 함께한 거울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녹슨 청동거울 안에 감춰진 고대 사람들의 모습과 소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함평 초포리 일괄



중국 거울 일괄

'60이지만, 요리는 처음입니다'

호랭이스쿨 프로젝트, 10일 동구 인문학당

지역 실전형문화기획학교 호랭이스쿨이 5000 명성을 위한 간편 요리 프로그램 행사를 마련했다.

2024 문화기획 프로젝트 '60이지만, 요리는 처음입니다'가 오는 10일 오전 10시 동구 인문학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냉장고에 항상 있는 재료로 쉽고 간편하게'를 콘셉트로 구성됐다.

지난 3일 계란을 이용한 초간편 요리는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10일에는 콩나물 김치국과 제육볶음 요리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요리행사 강사로는 현재 동명동 한식주점 '우'를 운영 중인 김지열 셰프가 맡는다.

그는 주인도 대사관 셰프, 82대통령 행사, 외교부장관 만찬 등 전문적인 경험을 지닌 베테랑 요리사다.

최형선 호랭이스쿨 기획자는 "아빠에게 가장 필요한 노후준비인 '요리'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다. 은퇴가 가까워지며 삶의 무대가 집으로 바뀌어 가는 우리네 아빠들이 요리뿐만 아니라 집안일을 익혀 가정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광주비엔날레 아트숍 G# '인기'

자체 제작 상품 등 300여종 판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과 연계 기획한 광주비엔날레 아트숍 G#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선보이고 있는 아트숍 G#(사진)이 또 다른 전시 체험의 장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아트숍 'G#'은 광주비엔날레가 지향해온 다양한 동시대 미술 담론의 장처럼 통합 브랜드 공간을 목표로 개막에 맞춰 문을 열었다. 전시 관람의 여운과 감흥을 증폭시키고, 또 다른 전시 경험과 체험을 창출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의 'G'와 확장 가능한 프레임이자 Shop을 의미하는 '#'을 조합했다. '#'은 광주비엔날레가 정의하는 Shop의 새로운 시각이자 확장과 변용, 재결합이 가능한 유닛을 상징한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야외광장에 독창적 디자인의 컨테이너로 마련된 G#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를 기념할 수 있는 상품부터 체험 상품까지 다양한 구성으로 꾸며졌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시각이미지(EIP) 활용 자체 제작 상품은 물론 G



#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 제품까지 총 300여 종을 선보인다.

특히 제15회 광주비엔날레 EIP 활용 티셔츠 체험존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기본 티셔츠 등 상의를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EIP가 새겨진 전사지를 배치해 열 프레스기로 찍어내면 내가 디자인한 단 하나 뿐인 옷을 즉석에서 제작할 수 있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로 디자인된 신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마련됐다. 이밖에도 광주비엔날레 역대 도록, 동시대 미술의 주요 쟁점과 미학적 담론을 다룬 정론지 '눈(noon)' 1-7호 전권을 판매 중이다.

한편 광주비엔날레 아트숍 G#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관람시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최명진 기자

'ACC 온라인 극장' 협력기관 모집

문예회관·학교 등 대상...22일까지 상시 접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창·제작 작품을 영상으로 제작해 유통하는 'ACC 온라인 극장' 협력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영상콘텐츠 유통 협력기관 모집은 지역 문화예술회관, 각급 학교, 작은 영화관 등 영상 시설을 갖춘 국내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2일까지 상시 접수한다.

'ACC 온라인 극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창·제작한 콘텐츠 중 공연 영상 19종과 필름 1종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 영상 콘텐츠로는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시간을 질하는 사람'과 '나는 광주에 없었다'를 비롯해 어린이 공연 '거인 양갈로', '개굴 개굴 고래고래(사진)' 등 ACC창·제작 대표 레퍼토리가 포함된다.

또 필름은 2015년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상영작이자 ACC개



관 프로그램인 태극 아피차퐁 위라세 타곤 감독의 '찬란함의 무덤'을 유통한다. 이 작품은 2015년 아시아태평양 스크린 어워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22 서울아트시네마 초청 상영돼 호평을 받기도 했다.

ACC재단은 선정된 기관에 무료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며, 협력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5회 이상 영상을 상영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CC재단 누리집 또는 ACC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p>시내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	---	---	---

▶ 목포지사 061)270-8689 ▶ 나주시사 061)335-0005 ▶ 보성지사 061)852-6644 ▶ 무안지사 061)453-3645

· 동목포지사 061)278-0740 · 광양지사 061)793-6800 · 화순지사 061)373-7795 · 함평지사 061)322-0882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구례지사 061)782-4696 · 장흥지사 061)863-6800 · 영광지사 061)353-5133

· 신안지사 061)980-8300 · 담양지사 061)383-5566 · 강진지사 061)432-8899 · 장성지사 061)394-3636

· 순천지사 061)746-1600 · 곡성지사 061)362-5746 · 해남지사 061)535-5849 · 완도지사 061)555-0134

· 여수지사 061)651-6433 · 고흥지사 061)832-6290 · 영암지사 061)473-7151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